

취약가족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비교

배옥현* · 이영석**

요 약

본 연구는 취약가족 아동의 복지와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취약가족은 한부모, 다문화, 기초수급가족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가족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인지·언어발달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내의 3-5세 아동 872명이며, 이들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 12.0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약가족 아동의 발달수준은 비취약가족 아동의 발달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서로 다른 계층의 아동 간에 나타나는 인지·언어발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및 어떤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취약아동, 비취약아동, 인지·언어발달

논문투고일 : 2011. 11.15

최종심사일 : 2012. 2.15

게재확정일: 2012. 2.17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교육인재개발실장,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Lee, Young-Suk,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Gyeongbuk-Technopark, 27, Sampoong-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712-210.

E-mail : gwpdi@naver.com

I. 서론

인간은 전 생애기간 동안 각각의 발달단계가 있으며, 각 시기에 따른 과업(development tasks)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 발달에 따른 단계별 과업 중 신체를 포함한 모든 발달적 변화는 예측가능한 일정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전 단계의 과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다음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기초적 바탕이 된다. 때때로 영양부족이나 질병은 아동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지체시키기는 하지만 적절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면 성장의 가속화 현상인 따라잡기 성장(catch-up growth)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손상기간이 길면 충분한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므로 영구적인 성장지체를 일으킬 수 있다(장휘숙, 2006). 이러한 점에서 Freud(1905)는 생의 초기인 만 5세까지의 경험이 이후 전 생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강조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시기의 교육적 중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아동의 인지발달은 뇌와 머리, 임파조직 등에서 만 2세 무렵의 성장 급등기에 이어 5세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며(Fischer & Rose, 1995), 지각능력이 점차 발달하여 주의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시간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길어진다. 또, 5세가 되면 글자의 특징적 형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를 가르치는 시기로 보고 있다(Gibson et. al., 1962). 따라서 이 시기에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하면 발달 지연의 문제가 완화되거나 정상발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와 애정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성장하지만, 흔히 취약가족이라 부르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가족 등의 아동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또는 미혼으로 어느 한쪽 부모와 살고 있거나 가족해체로 인해 조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국적의 어머니를 두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극빈층 아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취약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BS 보도자료, '09. 4. 13.). 이러한 소득양극화는 지식양극화 현상으로 연결되어 세대 대물림 현상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취약가족 아동은 저소득층에 몰려있고 돌봄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빈곤의 대

물림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대물림이 우려된다.

취약가족 아동은 부모의 빈곤이나 역할부재로 인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발전성이 저하되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으므로 다양한 인지발달이나 학습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김기환, 1997; 박정란, 서홍란, 2001). 또한 인간발달 단계 중 아동기에 빈곤을 겪게 될 경우, 그 악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악영향은 학업중퇴나 결혼, 노동능력과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광혁, 2005; 김기환, 1997 재인용; Duncan & Brooks-Gunn, 1997b; Hill & Sandfort, 1995; Mayer, 1997).

따라서 최근까지 취약가족의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신체 및 운동, 인지 및 언어, 정서 및 사회성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취약가족으로 분류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가족의 아동들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취학 전 기초학습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언어발달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 3, 4, 5세 아동의 인지·언어발달에 있어서 이들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취약가족의 가족은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있어서 결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소년소녀가정,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미혼모가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의 결손이 예상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가족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가족의 취학 전 아동에 있어서 학습발달 영역인 인지·언어발달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아동발달 선행연구

한부모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불가피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사회적 활동의 제약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돌보며, 그들이 겪는 생활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는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부나 모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이나 상실감 등의 감정처리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된 아동은 부모가족의 아동보다 우울정도가 높고, 자아개념이 낮아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부모의 부재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지·언어발달의 차이를 직접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계숙(2008)의 연구에서는 동거부모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적응, 정서적 유능성, 타인 정서의 인식과 배려 및 자기정서의 인식과 표현 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 어머니와 동거하지만 어머니가 주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아버지와 동거하고 아버지가 주 양육을 하는 경우에 또래관계와 자기정서의 인식과 표현에서 적응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동일한 한부모 조건에서도 직접 양육여부가 아동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다문화가족의 아동발달 선행연구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일반가족 아동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 언어에 노출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보다 언어발달 지체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이해언어발달 측면에서 3세 아동의 경우는 100%, 4세는 44%, 5세는 13%의 지체 비율이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지체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며,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3~5세에 분포하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68%가 표현언어지체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3~6세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보다 낮은 언어능력을 보임을 보이고 있

는데, 이러한 차이는 특히 5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경미, 2008 재인용; 박상희, 2006; 박지윤, 2007; 정은희, 2004; 황상심, 2007).

한편 4세에서 6세 사이에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과 한국어 또는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아동을 비교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언어습득 완성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중언어 경험에 의한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줄어들어 6세에 이르면 거의 없어진다고 한다(김경미, 2008 재인용; 황혜신, 황혜정, 2000). 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족 환경의 이중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수의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유아기를 지난 학령기에도 언어문제를 보이고 있고,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해 및 표현 언어능력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보다 낮은 이해 및 표현 언어능력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김경미, 2008 재인용; 박지윤, 2007).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다문화가족의 환경이 아동들의 언어나 학업, 인지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관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양성오, 황보명, 2009; August & Shanahan, 2006; Bloomfield & Dodd, 2004; Mennen, Stansfield & Johoston, 2005). 하지만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농어촌에 밀집하여 있고, 소득이 낮으며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일반가족의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다른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언어 및 인지발달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저소득가족의 아동발달 선행연구

저소득 빈곤 아동은 부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출생 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지속적인 영양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의 신체발달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유아기의 신체발달 부진은 인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령기의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은 아동의 언어발달(Whiteman & Deutsch, 1968), 지능(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운동(Petterson, & Albers, 2001), 정서 및 사회적 기능(Bradley, 1995) 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외에도 빈곤에 따른 가정환경 자극은 구체적으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가정의 물리적 조건상황, 학습기회를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s-Gunn, & Klebanov & Liaw, 1995;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재인용). 예컨대 부모가 아동에게 책, 장난감을 사주거나 좋은 교육기관을 다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또한 아동과 함께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에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발달적으로 취학 전 시기에 아동에게 질 높은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언어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Howes, 1988; Hofferth & Phillips, 1991; NICHD, 1997, 1998; Ramey & Ramey, 1998;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재인용), 이 시기의 양육의 질적 수준은 아동초기 IQ지수와 상관이 있으며, 또한 부모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태도는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건들이다(Ramey, Yeates, & Short, 1984; Wasik, Ramey, Bryant, & Sparling, 1990; 박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재인용).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들은 아동초기의 열악한 환경이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습발달인 인지·언어의 발달정도가 취약가족과 비취약가족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내 만 3, 4, 5세 아동이지만, 이들은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연령대이므로 이들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협조를 얻어 이들 교사가 인식하는 각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정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904부로 이들 자료 중 응답이 미비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로 872부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언어발달 척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2009)를 기초로 하여 3세, 4세, 5세용으로 재구성하였다.

1) 인지발달 척도

인지발달 척도는 <표 1>과 같이 기본인지, 수리적 사고, 사회적 사고, 과학적 사고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렇다’의 1점에서 ‘아니다’의 0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발달 정도가 빠름을 의미한다. 인지발달의 신뢰도는 3세 Cronbach’s α =.889, 4세 Cronbach’s α =.902, 5세 Cronbach’s α =.910이다.

2) 언어발달 척도

언어발달 척도는 <표 1>과 같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렇다’의 1점에서 ‘아니다’의 0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발달 정도가 빠름을 의미한다. 언어발달의 신뢰도는 3세Cronbach’s α =.919, 4세 Cronbach’s α =.916, 5세 Cronbach’s α =.912이다.

<표 1> 3, 4, 5세 아동의 요인별 인지·언어발달 문항 수

영역		3세	4세	5세
		문항 수	문항 수	문항 수
인지	기본인지	14	10	6
	수리적 사고	9	8	9
	사회적사고	2	3	11
	과학적사고	2	5	8
	전체	27	26	34
언어	말하기	17	11	10
	듣기	4	2	-
	읽기	2	3	2
	쓰기	6	6	7
	사회적 의사소통	7	4	5
	전체	35	26	24

3. 조사기간 및 자료처리

조사기간은 2010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직접방 문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program ver. 12.0을 활용하여 취약가족 아동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표준편차, ANOVA 분석 및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취약가족 아동

‘취약’이란 ‘무르고 약함’(http://krdic.naver.com)을 뜻하며, ‘취약가족’이란 ‘가족 중 대내외 적으로 가족기능이 약한 조건을 가진 가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취약가족 아 동의 범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차상위, 차차상위 가족은 제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2) 비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은 취약하지 않은 가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 중 저소득층(차 상위 및 차차상위 가족 포함)에 속하지 않고, 양 부모를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아닌 아 동으로 한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3, 4, 5세 인지 및 언어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ANOVA 분석 및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1. 3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

1) 3세 아동의 인지발달

취약가족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가족의 3세 아동과 비취약가족 3세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 <표 2>에 나타나 있다. 인지발달의 전체 점수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F=8.236$, $p<.001$)한 차를 보였으며, 하위 집단간에는 다문화가족의 아동($M=15.02$)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18.59$)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M=17.86$)에 비해 인지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은 취약가족의 아동이 비취약가족의 아동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취약가족 중 다문화가족 아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수준은 비취약가족 아동과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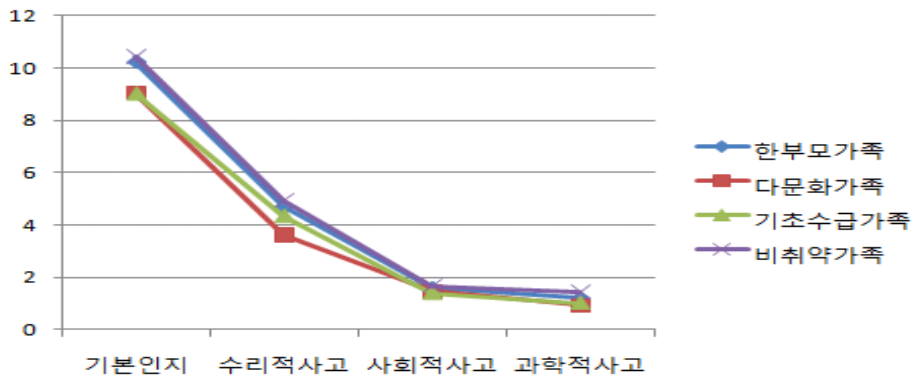
하위요인인 기본 인지($F=5.231$, $P<.01$), 수리적 사고($F=6.764$, $p<.001$), 사회적 사고($F=3.615$, $p<.05$), 과학적 사고($F=10.506$,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인지는 다문화가족의 아동($M=8.54$)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10.44$)과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다문화가족 아동이 훨씬 느린 발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리적 사고는 다문화가족 아동($M=3.63$)이 비취약가족 아동($M=4.94$) 및 한부모가족 아동($M=4.70$)과 집단간 차이를 보여 수리적 사고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아동과 비취약가족 아동 집단간에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사고는 비취약가족 아동($M=1.67$)이 가장 높은 인지수준을 보이며, 그 다음은 한부

모가족 아동(M=1.61), 다문화가족 아동(M=1.48), 기초수급자 가족 아동(M=1.40) 순으로 나타나, 기초수급자 가족 아동의 사회적 사고 발달이 가장 늦음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사고는 다문화가족의 아동(M=.93)과 기초수급가족의 아동(M=1.02)이 비취약가족 아동(M=1.45)과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 두 집단이 과학적 사고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3세 아동의 요인별 인지발달 정도

<표 2> 3세 아동의 요인별 인지발달 정도

(N=345, 단위: 명)

문항	구분	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	F값 (유의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		
기본인지	평균	10.21	9.04a	9.04	10.44b	5.231**
	표준편차	2.44	8.54	9.60	8.07	
수리적사고	평균	4.70b	3.63a	4.35	4.94b	6.764***
	표준편차	1.97	2.18	2.16	2.27	
사회적사고	평균	1.61	1.48	1.40	1.67	3.615*
	표준편차	.57	.69	.74	.61	
과학적사고	평균	1.22	.93a	1.02a	1.45b	10.506***
	표준편차	.75	.79	.82	.71	
전체	평균	17.86b	15.02a	16.18	18.59b	8.236***
	표준편차	4.83	5.70	6.15	5.60	

*p<.05,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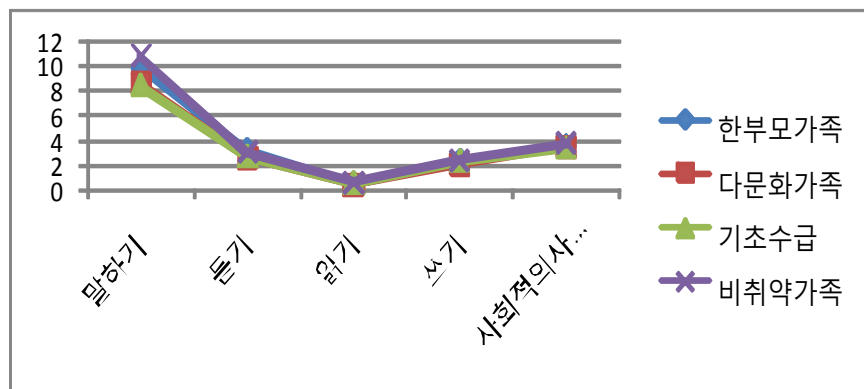
2) 3세 아동의 언어발달

3세 아동의 언어발달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 <표 3>에 제시하였다. 3세 아동의 언어발달 전체점수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F=4.684$, $p<.01$)한 차를 보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아동($M=17.56$), 기초수급가족 아동($M=18.15$), 한부모가족 아동($M=20.02$), 비취약가족 아동($M=21.43$) 순으로 인지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인 말하기($F=6.063$, $p<.001$), 듣기($F=5.512$, $p<.01$),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읽기, 쓰기, 의사소통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기는 다문화가족($M=8.67$) 및 기초수급가족($M=8.53$) 아동 집단이 비취약가족($M=10.78$) 아동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과 기초수급가족 아동이 매우 느린 발달을 보이며, 동시에 다문화가족과 기초수급가족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듣기는 다문화가족의 아동($M=2.63$)과 한부모가족의 아동($M=3.2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를 보여 다문화가족 아동은 듣기 능력이 낮은 반면, 한부모가족 아동의 듣기 능력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언어습득의 기초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말하고 듣는 기회가 타 집단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2> 3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표 3> 3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N=346, 단위: 명)

문 항	구 분	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	F값 (유의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		
말하기	평 균	9.86	8.67a	8.53a	10.78b	6.063***
	표준편차	3.87	4.58	4.99	4.25	
듣기	평 균	3.25b	2.63a	2.77	3.14	5.512**
	표준편차	.94	1.26	1.30	1.02	
읽기	평 균	.63	.47	.63	.74	2.141
	표준편차	.76	.74	.81	.81	
쓰기	평 균	2.47	2.03	2.35	2.51	1.737
	표준편차	1.42	1.69	1.58	1.65	
의사소통	평 균	3.65	3.51	3.45	3.87	1.269
	표준편차	1.67	1.75	1.94	1.71	
전체	평 균	20.02	17.56	18.15	21.43	4.684**
	표준편차	4.83	5.70	6.15	5.60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2. 4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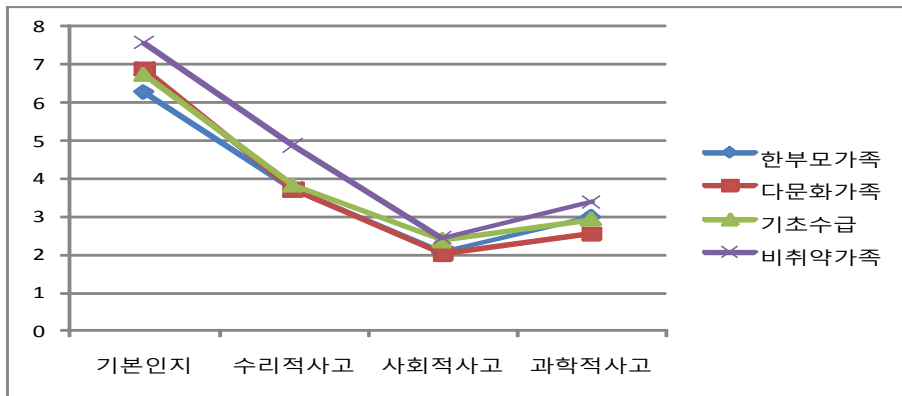
1) 4세 아동의 인지발달

4세 아동의 인지발달 정도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3>, <표 4>와 같다. 인지발달의 전체 점수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F=7.014, p<.001)한 차를 보였으며, 하위집단간에는 한부모가족(M=15.01)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M=15.36)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18.56)에 비해 인지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세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은 취약가족의 아동이 비취약가족의 아동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취약가족 중 다문화가족 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둘 다 다른 집단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3세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한부모가족 아동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다.

하위요인인 기본 인지(F=6.659, p<.001), 수리적 사고(F=6.175, p<.001), 사회적 사고(F=4.294, p<.01), 과학적 사고(F=4.150, p<.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인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M=6.26)이 비취약가족의 아

동(M=7.56)에 비해 통계적 집단차를 보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의 발달이 가장 늦음을 알 수 있다. 수리적 사고는 한부모가족(M=3.70)과 다문화가족 아동(M=3.71)이 비취약가족 아동(M=4.86)에 비해 늦음을 알 수 있다. 단 한부모가족 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사고는 다문화가족 아동(M=2.02)의 발달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사고는 다문화가족의 아동(M=2.55)의 점수가 가장 낮고 비취약가족의 아동(M=3.37)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차를 보였다.

4세 아동의 인지발달의 특징은 3세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은 3세 아동에서 보여주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같은 수준의 발달현상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그림 3> 4세 아동의 요인별 인지발달 정도

<표 4> 4세 아동의 요인별 인지발달 정도

(N=260, 단위: 명)

문항	구분	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	F값 (유의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준		
기본인지	평균	6.26a	6.87	6.73	7.56b	6.659***
	표준편차	2.42	1.77	2.06	1.59	
수리적사고	평균	3.70a	3.71a	3.82	4.86b	6.175***
	표준편차	2.51	2.06	2.29	1.90	
사회적사고	평균	2.05	2.02	2.37	2.43	4.294**
	표준편차	1.01	.92	.81	.79	
과학적사고	평균	2.98	2.55a	2.92	3.37b	4.150**

	표준편차	1.66	1.63	1.48	1.22	
전체	평균	15.01a	15.36a	15.78	18.56b	7.014***
	표준편차	7.20	5.52	5.95	4.82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2) 4세 아동의 언어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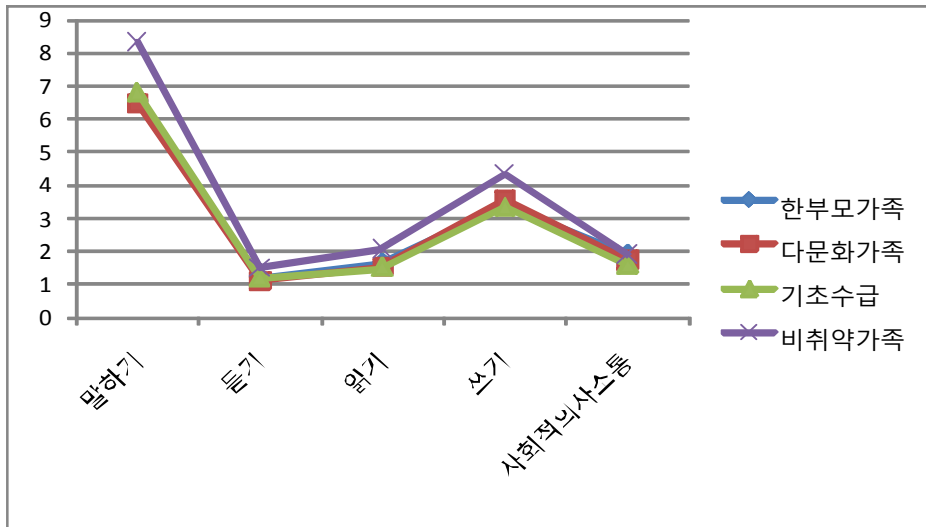
4세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4>, <표 5>와 같이, 언어발달의 전체 점수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미($F=6.214$, $p<.001$)한 차를 보였으며, 하위집단간에는 다문화가족($M=14.33$) 및 기초수급가족의 아동($M=14.53$)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18.00$)에 대해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4세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은 취약가족 중 다문화가족 아동과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말하기($F=7.793$, $p<.001$), 듣기($F=4.869$, $p<.01$), 읽기($F=4.552$, $p<.01$), 쓰기($F=6.04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의사소통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말하기 영역은 한부모가족의 아동($M=6.50$)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M=6.48$)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8.32$)에 비해 말하기 수준이 낮으며, 한부모가족 아동과 다문화가족 아동간 통계적 집단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듣기 영역은 다문화가족의 아동($M=1.10$)이 듣기 발달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취약가족의 아동($M=1.49$)과 통계적 집단차이를 보였다. 쓰기 영역은 한부모가족의 아동($M=3.36$) 및 기초수급가족의 아동($M=3.30$)이 비취약가족의 아동($M=4.33$)에 비해 쓰기 발달이 늦음을 알 수 있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기초수급가족 아동간에는 통계적 집단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세 아동의 언어발달의 분석결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영역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타 집단에 비해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쓰기 영역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이나 기초수급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4> 4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표 5> 4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N=266, 단위: 명)

문항	구분	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	F값 (유의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		
말하기	평균	6.50a	6.48a	6.80	8.32b	7.793***
	표준편차	3.44	2.92	3.17	2.69	
듣기	평균	1.20	1.10a	1.20	1.49b	4.869**
	표준편차	.78	.75	.74	.64	
읽기	평균	1.63	1.53	1.48	2.06	4.552**
	표준편차	1.20	1.22	1.12	1.08	
쓰기	평균	3.36a	3.57	3.30a	4.33b	6.042**
	표준편차	1.99	1.84	1.94	1.61	
의사소통	평균	1.87	1.73	1.55	1.89	.943
	표준편차	1.32	1.33	1.11	1.13	
전체	평균	14.75	14.33a	14.53a	18.00b	6.214***
	표준편차	7.44	6.71	6.55	5.95	

*p<.05, **p<.01, ***p<.001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3. 5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정도

1) 5세 아동의 인지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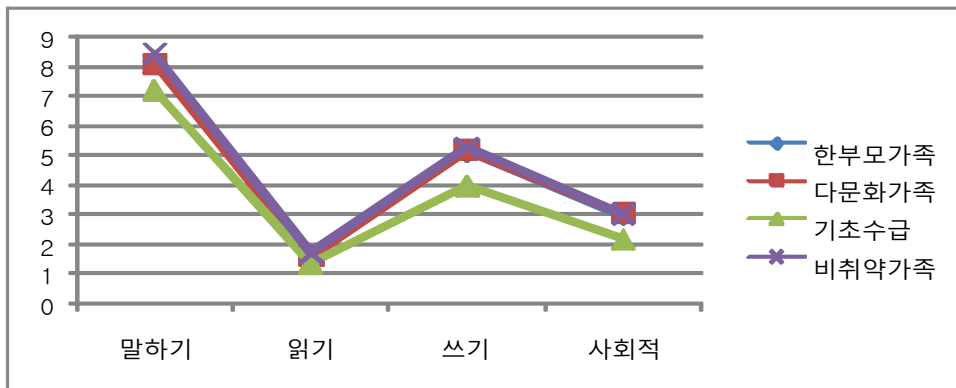
5세 아동의 인지발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취약가족의 아동이 비취약가족의 아동에 비해 인지 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가족 중에서도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정도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인지발달의 하위영역에서도 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5세 아동의 언어발달

5세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살펴본 결과(<그림 5>, <표 6>)에서 전반적인 언어발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2.714$, $p<.05$)를 보였다. 하위집단간에는 취약가족 아동이 비취약가족 아동보다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수급가족($M=14.96$)의 아동의 언어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M=17.78$), 다문화가족($M=17.83$), 비취약가족($M=18.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5세 아동이 언어수준은 취약가족 중 기초수급가족 아동이 타 집단에 비해 제일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인 쓰기($F=3.683$,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말하기, 읽기, 의사소통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쓰기 영역은 기초수급가족 아동($M=3.96$)이 다른 세 집단인 한부모가족($M=5.11$), 다문화가족($M=5.16$), 비취약가족($M=5.26$)과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비취약가족 아동간의 집단차를 나타나지 않았다.

5세 아동의 언어발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취약가족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언어발달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쓰기 부분에서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발달이 현저히 느린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 5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표 6> 5세 아동의 요인별 언어발달 정도

(N=213, 단위: 명)

문항	구분	취약가족 아동			비취약가족 아동	F값 (유의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수급		
말하기	평균	8.11	8.05	7.15	8.42	2.199
	표준편차	2.57	2.48	2.85	2.26	
읽기	평균	1.60	1.57	1.35	1.66	1.639
	표준편차	.71	.72	.73	.68	
쓰기	평균	5.11b	5.16b	3.96a	5.26b	3.638*
	표준편차	1.95	1.81	2.17	1.97	
의사소통	평균	2.95	3.02	2.17	3.00	2.295
	표준편차	1.75	1.76	1.58	1.64	
전체	평균	17.78	17.83	14.96	18.31	2.714*
	표준편차	5.94	5.81	5.41	5.66	

*p<.05

a, b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이상에서 유아기에 속하는 3, 4, 5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단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결과에서 취약가족이 아동의 발달수준이 취약가족 아동의 발달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증명되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3, 4세에 인지 및 언어발달 모두 낮은 현상을 보여주었으나 5세에 이르러서는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육시설의 교육서비스와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효과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발달이다.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발달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부모의 무관심과 기초수급가족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현상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취약가족 및 비취약가족 아동의 3, 4, 5세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차이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동의 인지발달 정도는 3, 4세 아동에 있어서 취약가족 아동이 비취약가족 아동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5세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약가족 아동 중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지발달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세 아동의 경우 기본인지, 수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발달이 비취약가족 아동보다 현저히 낮고 과학적 사고는 다문화가족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아동의 발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아동의 경우 기본인지, 수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에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발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아동의 인지발달 정도는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발달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결과는 결손가정 유아가 정상가정 유아보다 인지발달이 상당히 낮고(김태준, 1992), 한부모가족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 늦다는 연구 결과(이정민, 2003)와 빈곤가정 아동의 일반적, 지적, 언어능력이 일반가족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한충효, 1983)들과 일치한다.

둘째, 조사대상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취약가족 아동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3, 4세의 경우 취약가족 아동 중 다문화가족 아동이, 4, 5세의 경우 기초수급가족 아동이 현저히 낮은 언어발달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초수급가족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발달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

각 연령별, 하위요인별로 보면, 3세의 경우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말하기는 다문화가족과 기초수급가족 아동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발달이 느리고, 듣기 영역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부모가족 아동에 비해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아동의 경우 특히 말하기는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듣기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쓰기는 기초수급가족과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발달이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쓰기 영역에서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발달이 비취약가족 아동에 비해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4세의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가족 아동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언어능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양성오, 2009; 이정순, 2010).

본 결과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은 타 집단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점차 양호해지는 반면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발달은 가장 하위 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기초수급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취약가족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가족 아동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장애아 조기진단검사나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취약가족 아동 전체에 확대하여 발달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취약가족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문지도 학습도우미를 이용한 언어발달 지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호전되는 것은 개인별 학습도우미 정책의 효과가 한 몫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조사 자료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대한 조사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아동관찰을 통해 응답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아동은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는 아동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 확대된 결과를 얻는다면 해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 4, 5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초등학교생이 되고 난 이후 발달의 격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 김정미 · 유제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0(3), 83-98.
- 김광혁(2005).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09-125.
- 김경미(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및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1997). 「아동의 빈곤화 현상과 아동복지의 방향」, 연세사회복지연구 제4권, 3-29.
- 박정란 · 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양성오(2009). 「취학전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6). 「아동발달」, 박영사.
- 양성오 · 이양희(2009). 「취학 전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연구」, 언어 치료연구, 제 10권 제 1호, 37-57.
- Bolger, K. E., Patterson, C. J., W.w., & Kupersmidt, J. B.(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 russel-Sage Foundation.
- Duncan, G. J. & Brooks-Gunn, J., & Klebanou P.K.(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Fischer, K. W. & Rose, P. S.(1995). Concurrent cycles in the dynamic development of brain and behavior. *SRCD Newsletter*, 3-4, 15-16.
- Gibson, E. J., Gibson, J. J., Pick, A. D., & Osser, H. A.(1962)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discrimination of letter-like forms.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55, 897-906.
- Hill, Martha S.; Sandfort, Jodi R.(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 No1/2, 91-126.
- Mayer, S.(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Vulnerable families and Non-vulnerable Family

Bae, Ok-Hyun* · Lee, Young-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se children develop cognition and language level by comparing children's development from vulnerable families and Non-vulnerable Family. 'Children from vulnerable families' is defined as children who have single parent, multi-cultural family, and live in absolute poverty.

The subjects are 872 which consist of three to five year old children who attend child day care in Gyeongbuk Province. Children's development was observed and assessed by classroom teachers, using the questionnaire which researcher created.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children's items: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level. 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 was implemented to analyze the answers from the questionnaire and to compare four groups of the children's specific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s that vulnerable children's development is lower than non-vulnerable children in most domains. The study suggests that more investigation on what types of the social services and how the services would fill the developmental gaps among children who are from different social status should be provided.

Key Words : vulnerable families, non-vulnerable famil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Senior Researcher,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